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 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독자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예를 들어 ‘그가 사과를 깎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